



福音新聞 / THE GOSPEL NEWS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6年6月1日 (月) 第860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部100円)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発行人 / 張慶泰・編集人 / 鄭守煥

印刷所 靑丘文化社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표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어린이주일
설교

세대의 복이 되어

<이사야 61:1~9>



김청곤 목사 (츠쿠바동경교회)

이사야 61장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 시온에게 주어지는 회복을, 그 회복된 시온이 부르는 감격적인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축복을 보면 황폐함이 숲이 되는 것, 세계 만민에 대한 제사장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풍부한 물질적 축복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대와 미래를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곧 세대를 이어가며 이 언약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사람만을 살리는 약속이 아니라, 세대를 살리는 축복이 담겨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사모해야 할 세대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8절에서 세대를 향한 축복이 담겨 있는 그 언약을 의의 나무로 심겨질 자들과 맺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포로 되고 갇힌 자들의 아픔과 상함이 회복되어 다시 맺는 언약, 곧 언약의 갱신을 말합니다. 언약의 갱신이란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약의 갱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계획이 바뀌었기에 다시 언약을 맺자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사랑을 붙잡으라고 그 세대와 다음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갱신을 통해 다시 한 번 세대에 흐르는 축복을 강조합니다. 본문 9절에서 자손과 후손에 대한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믿음의 족장들과 맺은 언약의 축복에 대해 묵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며 복의 선언을 하셨습니다(창12:1-3).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 그리고 너의 세대를 통해 세상에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이 되라”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삼아 그를 통해 민족과 세대가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이후 무너진 삶과 상처 입은 마음, 곧

황폐함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믿음의 족장들에게 준 이 언약을 다시 껴입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1장은 언약의 갱신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사는 너희들이 다시 복이 되라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창세기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같습니다. 의의 나무가 되어 복을 세대에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세대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세대를 설계한 유명한 역사의 이야기가 있지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703년 미국 북동부지역 코네티컷(Connecticut)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가 출신도, 부유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가정의 복의 기준을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11명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루느냐 보다, 누구 앞에서 있느냐? 무엇을 가지느냐 보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라고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나라의 가치의 우선이라는 신앙의 이 기준이 에드워즈 가문의 세대를 관통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드워즈에게 성공과 부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세대의 축복이 있는 언약을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의 복은 편안한 인생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심어주며 그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불편해도 가정과 세대에 복음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세대의 축복”을 날마다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언약갱신을 통해 세대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다음 세대에 신앙의 전승을 이어가는 복을 흘러 보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대를 넘어 복이 흘러가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교회의 다음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교회의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이들을 통해 세대의 복이 또 다시 흐르는 비전을 품는 복된 어린이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ルツ結婚相談所
お気軽にお電話ください。心を尽くして御成婚までお世話します。お電話をお待ちしています。
代表 崔貞淑(神戸東部教会名誉勲士、仲人歴30年)
〒659-0012 芦屋市朝日ヶ丘町10-35-504
090-3429-9707

エリム鍼灸整骨院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일본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선생님이 치료를 도와드립니다.
지압코스·맞춤관리·종합 건강관리
東京都江戸川区西小岩4-14-15 1階 (JR総武線小岩駅徒歩5分)
TEL03-6458-0633
KCCJ盤石教会 金鎬烈接手執事 (080-6784-8655)
柳繡珍勲士 (070-2170-8655)

관동지방회

제77회 정기총회 개최

2명의 선교사가 입식거행

관동지방회 제77회 정기총회가 2026년 4월 29일(수), 요코하마교회에서 총대 79명 중 67명(그중 위임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이영구장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지방회장 김신아목사가 <내 안에 거하라> (요한 15:7)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부회장 정유성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의사 진행한 가운데 내빈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의사에 들어갔으며, 각 위원회의 보고를 승인하고, 현의안으로는 각 교회에서 제출한 장로 증원 청원을 승인했다.

한사랑교회1명, 니시아라이교회1명, 동경중앙교회1명, 센다이교회1명, 시나가와교회2명, 요코하마교회 3명, 동경교회 5명.

또한 새롭게 박중하목사(PCK파견 선교사), 오은성목사(PROK 파견 선교사)의 가입을 승인하고, 폐회 예배 시 가입식을 거행하기로 하였으며, 오은성목사가 개척전도소(가칭, 쿠마가야 <熊谷>전도소)를 개설하는 것도 승인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안(5,743,700엔)이 승인되었다.



중부지방회

제63회 정기총회 개최

名古屋교회 장로 2명 증원을 승인

중부지방회 제63회 정기총회가 2026년 4월 30일(목), 치쿠마비전전도소에서 총대 23명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지방회 서기 채은숙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지방회장 이진용목사가 <니스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요나 3:3-5)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김형진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의사 진행한 가운데 내빈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일본기독교단에서는 중부교구 의장 가토우 미키오목사, 토우카이교구 의장 야나기야 토모유키목사가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였으며, 일본그리스도교회 킨키중회 의장으로부터의 인사말을 채은숙목사가 대독, 총회장 인사말은 김병균목사가 대독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의사에 들어갔으며, 각 위원회의 보고를 승인하고, 현의안으로는 나고야교회에서 제출한 장로 2명 증원 청원을 승인했다. 2026년도예산안(16,875,230엔)이 승인되었다.



관서지방회

제77회 정기총회 개최

2명의 목사안수식 거행

관서지방회 제77회 정기총회가 2026년 5월 6일, 교토교회에서 총대 66명 중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부회장 요시이히데오장로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관서지방성가대연합회의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의 찬양 후, 박영자목사가 <오더 메이드> (요한복음21:1-14)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예배헌금은 「모리모리 푸드 팬트리」 지원을 위해 드려졌다.

부회장 송남현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그 후, 이시바시마리에전도사(전국교회여성연합회), 구분서전도사(교토교회)의 목사안수식이 거행되었다.

현의안 심의에서는, 각 교회의 장로증원 청원(교토 2명, 교토남부 1명, 오사카북부 3명, 오사카 2명, 후세 1명, 사카이 1명)이 승인되었다.

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안 10,649,712엔이 승인되었다.



서부지방회

제42회 정기총회 개최

부회장에 김철호장로를 선출

서부 지방회 제42차 정기총회가 4월 29일(수) 니시노미야(西宮)교회에서 열렸다.

개회 예배에서는 지방회장 한세일목사가 “고난을 이겨내는 거룩한 연대” (전4:8-12)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손신일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전 총대 32명 중 25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어, 소천자의 기도가 끝난 뒤 신 총대 소개, 총회 부회장이 총회장 인사문을 대독, 내빈 소개와 축사가 진행되었다. 각종 보고가 끝난 뒤, 총회 임원이 된 백승호 장로의 부회장 사임에 따라 김철호장로가 후임으로 선출되었다.

그 외에도 무목교회의 임시당 회장 선출, 무코가와 교회와 고베교회의 각각 장로 1명 증원 청원, 2025년도 회계결산 및 2026년도 예산안(9,583,150엔)이 승인되었다.



서남지방회

제76회 정기총회 개최

지방회 규칙 개정을 가결

서남지방회 제76회 정기총회가 4월29일(수) 벳부교회에서 총대 26명 중 19명, 준총대 11명, 방청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지방회장 윤선박목사가 <사랑의 총량> (요한 6: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부회장 조현규목사의 집례하에 성찬식을 거행했다.

점심식사 후 의사결의에 들어가, 현의안 제1호「후쿠오카교회 장로선거허락 청원」을 승인했다. 현의안 2호부터 4호「서남지방회 규

칙 개정(안 건) 모두 가결하였고, 현의안 제5호「제76회기 서남지방회 예산안 11,578,482(예비비 7,346,482엔 포함)엔」을 승인했다.

현의안 제6호「이혜란 목사는 퇴에 따른 선교협력부장 선임과 구제기금위원회 위원 인수인계 건」은 임직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신임 목사, 선교사의 각오>

○이시바시마리에 목사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2026년 5월 6일, 관서지방회 제77회 정기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시바시 마리에입니다. 2012년 4월부터 요코하마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며, 2016년부터는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와 사카이교회 전도사로 섬겨 왔습니다. 저는 평생 전도사로서 주님을 섬기리라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또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상황을 통해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목사 안수를 받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심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에게는 이 14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도사로서 14년, 총무로서 10년, 그 기간동안 많은 만남이 있었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 뿐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기에 앞으로도 많은 훈련이 필요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그릇이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고 충실한 주의 종으로서, 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곁에 서는 종으로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에 덩그러니 놓여진 것만 같습니다. 부디 주님의 영이 바람과 같이 저를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바람과 같이 이 땅에 머물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은성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파송 선교사, 熊谷살롬전도소 개척)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재일대한기독교회 소속 선교사로 섬기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문화와 언어의 차이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지역사회와 교회를 섬김과 사랑으로 세워가겠습니다. 또한 맡겨진 사명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 재일대한기독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 협력하고, 동참하여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리를 잘 지켜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처음 받은 부르심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서목사 (교토교회 부목사)

이 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녔으나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5월 6일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신앙의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안수식 때 선배 목사님들께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 가운데 저도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인생의 경험이 짧아 이 눈물의 의미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조금씩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나고, 교회에 혼자 남았을 때 홀로 허공을 바라보며 처음 내뱉은 기도는 “주님 이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광야 위



○박중하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파송선교사, 동경교회 협력 예정)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사로 가입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와 돌보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가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부르신 뜻과 소명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재일동포들과 일본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와 지역사회에 섬김이 되는 목회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8월부터는 동경교회에서 협력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선배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겸손히 배우고 협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관동지방회 동경교회 장로 장립식 거행 집사 안수식, 권사 임직식도 겸하여

2026년 5월 14일 주일 오후, 동경교회에서는 윤성중, 성정제, 최정준, 강평수, 서민교 등 5명의 장로 장립식, 염승도, 진정환, 김기현 집사 안수식, 배득미, 김혜정, 강은경 권사 임직식이 오례만에 거행되었다.

예배는 임시당회장 구지우 목사의 사회로, 관동지방회 부회장 정유성목사의 「이기는 교회가 되어라」(신8:1-3, 요한계시록 3:12-13)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윤성중 장로



성정제 장로



최정준 장로



강평수 장로



서민교 장로

이어서 진행된 장로 장립식은 관동지방회장 김신야목사의 사식으로 소개, 서약, 안수, 선포가 이루어졌다.

집사 안수식, 권사 임직식은 임시당회장 구자우목사의 사식으로 거행되었다.

이번에 동경교회의 시무 장로로 장립을 받은 5명의 장로는 다음과 같다.

- 윤성중 장로는 1962년 한국 출생, 2007년부터 서리집사, 2014년부터 안수집사로 봉사해 왔다.
- 성정제 장로는 1963년 한국 출생으로, 2007년부터 서리집사, 2014년부터 안수집사로 봉사해 왔다.
- 최정준 장로는 1963년 한국 출생으로, 2003년부터 서리집사, 2008년부터 안수집사로 봉사해 왔다.
- 강평수 장로는 1963년 한국 출생으로, 2001년부터 서리집사, 2004년부터 안수집사로 봉사해 왔다.
- 서민교 장로는 1969년 한국 출생으로, 2002년부터 서리집사, 2006년부터 안수집사로 봉사해 왔다.

<정정과 사과>

(1) 복음신문 2026년 4월호 한국어판 4면, 이운구 명예장로 소천 기사에 본문에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정정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바른 이름은 <이운구장로>입니다.

(2) 복음신문 2026년 5월호 한국어판 2면 중부여성회 신임회장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정정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바른 이름은 <여화숙권사>입니다.



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 결정과 방향 (2)

—일본 언론의 반응과 정치권 논쟁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파장—

현대종교 탁지웅 신부

일본 언론의 반응

일본 주요 언론은 이번 판결을 “전후 일본 종교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한다. 다수의 언론이 이번 판결을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고액 현금 피해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규정했다. 특히 피해자 단체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종교법인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핵심 쟁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와 국가 권력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도 있었다.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은 사실을 통해 이번 판결을 장기간 이어진 현금 피해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평가하면서도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랜 기간 이어진 현금 피해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사회적 책임을 묻는 판단을 내린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진단하며 “이번 판결은 종교 교리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조직적 행위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이번 사건을 일본 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문제는 종교단체의 활동뿐 아니라 정치와의 관계를 다시 묻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특히 자민당 정치인들과 통일교 사이의 관계가 드러난 점을 지적했다.

향후 일본 민주주의에서 정치와 종교 사이의 적절한 거리 확보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에서 종교법인 해산 명령은 매우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은 국가가 종교단체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할 경우 향후 다른 종교 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뤘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면서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서 들여다봤다. 또한 일본 사회에서 최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종교 2세 문제도 강조했다. 부모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교육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처럼 일본 언론은 대체로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국가 권력의 행사 범위에 대한 경계심을 동시에 드러내는 비교적 균형 잡힌 논조를 보였다.

일본 국회에서의 논쟁-예산위원회와 TM 보고서 문제

2심 판결 이후 일본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 예산위원회에서는 통일교 문제와 정치권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제기됐다. 논쟁의 중심에는 이른바 TM(True Mother) 보고서 문제가 있었다.

TM 보고서는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내부 자료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과 통일교 관련 단체 사이의 접촉이나 행사 참여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예산위원회 질의에서 “자민당 정치인들과 통일교 관련 단체 사이의 관계”, “정치 행사에서 통일교 조직이 동원되었다는 의혹”, “정치인들의 축사 영상이나 메시지 제공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러면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타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 구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종교 활동 자체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종교의 자유도 함께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TM 보고서의 공개와 정치권의 관계 조사를 계

속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와 종교의 관계 재조명과 시민 사회의 논쟁

이번 판결은 일본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아베 사건 이후 일본 정치권에서는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종교단체 행사에 참석하거나 관련 단체와 협력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는 정치와 종교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시민 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오랜 투쟁의 결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부모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종교 2세’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젊은 세대는 부모의 종교 활동 때문에 학업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반면 일부 종교학자와 인권 단체는 국가가 종교단체를 해산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종교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과 전국영감상법대책 변호사연락회의 입장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통일교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문부과학성은 피해자 증언, 민사 판결 기록, 현금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고 일부 피해자들은 수천만 엔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2023년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정부가 종교단체 해산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다.

2025년 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에 대해 단순한 종교 활동의 범위를 넘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판단했다. 통일교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현금을 모아 사회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본 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 해산을 명령했다. 통일교 측은 즉시 항소했지만, 2026년 도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해산 명령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피해자 구제와 종교단체의 책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단체 중 하나는 ‘전국영감상법대책 변호사연락회’다. 이 단체는 1980년대부터 통일교와 관련된 피해자 상담과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의 대표적인 시민 법률 단체로, 통일교의 고액 현금과 이른바 영감상법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해산 명령 과정에서도 전국영감상법대책 변호사연락회는 일본 정부와 재판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해 왔다.

첫째, 통일교의 현금 모집 방식이 단순한 종교적 권유를 넘어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이용한 조직적 모금 구조라는 점이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상의 영혼 문제나 영적 제약을 강조하며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장기간 반복됐다.

둘째, 이러한 구조가 개별 신도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민사 판결과 피해 사례를 근거로 통일교의 모금 구조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셋째, 해산 명령 이후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통일교 자산의 이동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